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 회고와 전망 -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이 소 연(So-Yeon Lee)**

목 차

1. 서론	3.5 기록관리 과정별 기능 요건
2. 연구방법	3.6 장기보존
2.1 연구의 범위	3.7 정보패키지와 메타데이터
2.2 연구의 방법	3.8 유형별 전자기록의 관리
2.3 기본 정보	4. 시사점
3. 주제별 분석	4.1 현장 기반 실증연구
3.1 전자기록의 개념과 속성, 진본성	4.2 연구방법론
3.2 기록관리 정책과 법제	4.3 학술연구의 기본 요건
3.3 전자기록의 통합 관리	5. 결론
3.4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와 표준	

<초 록>

이 연구는 지난 11년 간의 전자기록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록학 분야의 양대 학회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그리고 4종의 문헌정보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 전자기록을 다룬 논문 57편을 선정하였다. 8가지 세부 주제영역별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영역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시사점도 실증연구, 연구방법론, 그리고 학술연구의 기본요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전자기록,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장기보존, 연구동향, 기록학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s at reviewing electronic records research trends published during the past 11 years, in order to shed light on what have been accomplished so far as well as what should be done to make progress in the field of archival science. A total of 57 research articles have been selected from 2 journals from archival science and 3 journals fro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lected articles are categorized into 8 subject areas. For each subject area, research trends are analysed. Where further research are needed are also identified.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are addressed in terms of the need of empirical studies and sound research methodology as well as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academic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Keywords: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long-term preservation, research trends,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al studies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1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oyeon@duksung.ac.kr)

■ 접수일: 2011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1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3일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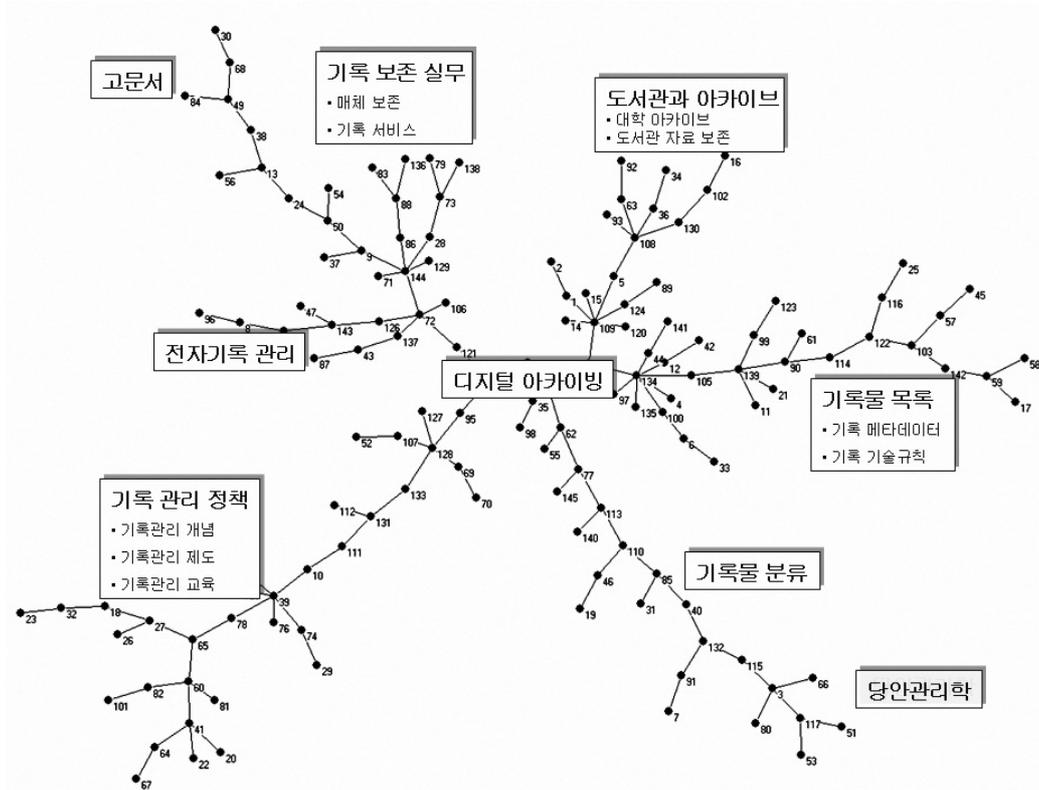
지난해인 2010년은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출범하고 학회지를 발간한지 11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별 분석을 통해 지난 동안의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이후의 학술연구의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였다. 기록 평가론에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지난 호에 실린 최재희의 논문(2011)이 그 첫 번째 시도이다. 이 논문은 최재희의 연구를 이어 두 번째로 전자기록 분야에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지에 실린 첫 번째 전자기록 연구논문은 전자정부 구현에 기록관리 방법론의 도입할 것을 제안한 김익한의 연구(2000)이다. 이 연구는 김익한의 연구가 나온 이후 2010년까지 11년간 발표된 전자기록 연구논문을 세부 주제별로 검토함으로써 그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록학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 구조를 분석한 김희정의 연구(2005)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가 법제와 정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연구는 전자기록 관리 연구 비중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희정은 이듬해 다시 1980년에서 2000년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12건의 연구동향 연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연구동향 변화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기록물과 기록관 중심의 연구에서 일단 전자기록과 정보시

스템에 관한 연구로 연구의 중심이 옮겨 간 후, 다시 정보기술 관련 주제와 학제적 연구주제로 이동함을 확인하였다(2006).

김희정의 연구 두 편이 서구와 우리나라의 연구동향을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재윤, 문주영과 김희정(2007)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 145개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문헌 간 유사도에 따른 주제별 분포를 다음과 같이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에 표시(p.362)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10년에 이른 2009년에는 네 편의 연구동향 논문이 발표되었다. 장로사와 김유승(2009)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 정보관리학회지 등 5종의 학술지에 실린 총 1,555편의 논문 중 전자기록과 정보기술을 주제로 한 논문 99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총 26개의 주제영역을 구분하였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4종의 학술지에 실린 39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논문들을 10개 주제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법 이전과 이후, 학술지별 분포, 연구자별 분포 등 주로 정량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김규환과 장보성, 이현정(2009)은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3종의 학술지에 실린 344편을 대상으로 제목의 구문과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추출한 키워드를 연구도메인, 연구대상, 연구초점의 3가지로 유형화하고, 핵심연구대상과 연구도메인, 연구



〈그림 1〉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표시한 기록관리학 지적구조

초점을 확인하였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3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374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주제영역, 연구배경정보, 연구자 특성정보 등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가 공유하는 특징은 주로 정량적인 측면에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어떤 주제를, 어떤 연구자가, 어떤 학술지에, 언제 발표했는지는 여러 연구자가 각각도로 검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 내용과 접근방식 등의 면에서 연구동향을 들여다보고 이후의 연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는 무엇인지, 연구방법이나 분석의 대상의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세부주제별로 치우치거나 결락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학계와 현장을 위한 지식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편집위원회는 기록관리학의 주요 연구영역별로 그 내용에 초점을 두어 연구동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문헌리뷰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 결과 우선 기록 평가론 연구동향을 다룬 최재희(2011)의 논문이 나왔다. 최재희는 기록보존, 기록학연구,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한국기록학회지 등 4종에 실린 논문 중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10년 간 발표된 논문 33편을 추출하고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자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점 등 정량적 분석의 결과와 함께, 내용적으로도 기록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부분은 전자기록 연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전자기록 연구'는 '전통적 기록과는 다른 전자기록의 속성이나, 그 속성에 기반한 관리의 방식을 다룬 연구'로 정의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자기록 연구 논문을 선정할 때 적용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새로운 환경이라는 의미로 '전자기록 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 예를 들어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아카이비스트 윤리에 관한 연구(신은영 2006)' 등은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SNS나 web 2.0 등을 다룬 연구도 이를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으로 본 것이 아니라면 제외하였다.

2.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는 전자정부와 전자기록관리를 다룬 것(김익한 2000; 김재훈 2002)은 포함시켰으나, 전자정부만을 다룬 황보열(2003)은 제외하였다. KMS 등의 정보시스템을 주제로 한 연구도 전자기록으로서의 정보관리 시사점을 다룬 연구만을 포함시켰다.
3. 아날로그 기록의 전자적 관리나 디지털화를 다룬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전자기록과 전자화기록을 함께 다룬 경우(김성겸 2007)는 포함시켰다.
4. 메타데이터를 주제로 한 연구는 정리기술 연구동향을 분석하게 될 이후 연구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제외하였다. 기술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는 전자기록과 전통적 기록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다룬 연구(이경남 2006; 우학명, 김희정 2009)는 포함시켰다. 또 특정 유형의 전자기록과 관계된 메타데이터 연구, 예를 들어 이메일 기록 획득을 위한 메타데이터 연구인 서연주와 정석권의 연구(2009)는 포함시켰다.
5. 기록관 웹사이트나 콘텐츠, 웹 검색도구를 다룬 연구는 서비스 연구동향을 분석할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제외하였다.
6. 전자기록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면 RMS를 다룬 연구¹⁾도 제외하였다.
7. 디지털 보존이나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도 전자기록에 논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 제외하였다.

1) 전통적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연구로는 이아현(2004), 광정(2005), 신동현·정세영·김선현(2009) 등이 있다.

8. 전자기록 가치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최재희(2011)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선 제외시켰다. 그러나 진본 평가에 관한 김익한(2006)은 전자기록 진본성을 다룬 연구로 간주하여 포함시켰다.

2.2 연구의 방법

이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전자기록 연구가 게재될 만한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흔히 기록관리학 분야 양대 학술지로 지칭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그리고 4종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 그리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등 6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2.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의 목록에서, 논문의 제목을 검토하여 전자기록의 속성과 관리를 다룬 논문을 골라냈다.
3. DBPia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4종의 학술지 각각에 게재된 논문 중 '전자기록'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연구를 추려내었

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게재 논문목록에서는 전자기록 연구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분석 대상 학술지 종수는 최종적으로 5종으로 확정되었다.

4. 위에서 열거한 선정기준에 따라 앞의 두 단계로부터 선별한 77편의 논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57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57편의 논문의 정량적 측면을 확인하였다. 발표 연도, 연구자, 연구비 지원여부 등의 기본 정보를 다음 절에서 정리할 것이다.
6. 두 번째로 내용분석을 통해 세부분야별로 57편의 논문을 범주화하여, 8가지 세부주제영역(전자기록의 속성과 진본성, 정책과 법제, 전자기록의 통합 관리,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설계와 표준, 기록관리 과정별 기능요건, 장기보존, 정보패키지와 보존 메타데이터, 유형별 전자기록의 관리)을 확인하였다. 세부주제영역별 연구의 동향은 3장에서 정리할 것이다. 영역별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연구도 제안할 것이다.
7. 전자기록 연구동향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 제안에 대한 논의는 4장에서 정리할 것이다.

<표 1> 전자기록 연구논문 목록

No.	연도	학술지*	논문명	세부주제
1	2000	연	전자정부와 과학적 기록관리: 방법론적 응용을 중심으로	통합관리
2	2001	학	정부기관의 전자문서관리 방향	통합관리
3	2001	학	과학기술 종합지식 경영시스템 (R&D-KMS) 구축	통합관리
4	2001	비	공개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정책 연구	정책법제
5	2002	학	전자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한 표준화 연구 동향	장기보존

1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1

No.	연도	학술지*	논문명	세부주제
6	2002	학	Shifting from paper to Digital Records - Preservation?	장기보존
7	2002	학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 개념을 중심으로	장기보존
8	2002	연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개념속성
9	2002	연	EDMS와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	개념속성, 통합관리
10	2002	연	전자정부 추진과 기록관리방안	통합관리
11	2003	학	미디어에 있어서의 자막기록의 의미와 전달성: 공중파방송과 비디오 아트에서의 자막기록을 중심으로	유형별관리
12	2003	정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	개념속성
13	2004	학	전자우편문서의 기록관리적 접근전략에 관한 연구	유형별관리
14	2004	문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정책법제
15	2004	정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설계표준의 기능요건 분석: ISO 15489를 기준으로	ERMS
16	2004	정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	통합관리
17	2004	정	정부 전자문서유통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통합관리
18	2005	학	전자기록철의 구조와 관리방안 - 영국 ERMS 표준을 중심으로 -	ERM과정
19	2005	학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System Design: Trends and Vision	ERMS
20	2005	문	전자기록물을 위한 보존매체의 관리	개념속성, ERM과정
21	2005	정	전자문서 아카이빙 표준모델 연구	장기보존
22	2005	비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방안	
23	2006	연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정보패키지
24	2006	연	전자기록의 진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	개념속성
25	2006	연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정보패키지(AIP) 구성과 구조	정보패키지
26	2006	연	행정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 분석	ERMS
27	2006	정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국가기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통합관리
28	2007	학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포맷등록시스템 개발 연구	장기보존
29	2007	학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설계에 관한 연구	ERMS
30	2007	학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	유형별관리
31	2007	연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이관절차모형에 관한 연구	ERM과정
32	2007	연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구축 사례 연구	정보패키지
33	2007	연	공공기관의 이메일기록 관리 방안 연구	유형별관리
34	2007	정	대학 전자기록물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설계 및 구현	ERM과정
35	2007	비	데이터세트 기록물의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유형별관리
36	2008	학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아젠다 개발	정책법제
37	2008	연	전자기록의 속성에 기반한 기록관리의 과제	개념속성
38	2008	연	ERMS 표준에 나타난 접근통제 요건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ERM과정
39	2008	연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실무적 해석	ERMS
40	2008	연	교무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 분석	통합관리
41	2008	문	전자 기록물 이관 절차 개발에 관한 연구	ERM과정
42	2008	정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자문서 안전배포 및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 설계 및 구현	ERM과정
43	2008	정	이메일 기록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유형별관리
44	2008	비	KM 기반의 기록관리 및 일반 정보관리 통합화 연구	통합관리
45	2009	학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장기보존
46	2009	연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정책법제
47	2009	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	ERM과정, 유형별관리
48	2009	연	전자기록 관리의 현황과 과제	개념속성, 정책법제

No.	연도	학술지*	논문명	세부주제
49	2009	연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ERMS
50	2009	정	OAIS 참조모형의 PDI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록 보존기술요소 연구	정보패키지
51	2009	정	공공기관의 이메일 기록 획득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연구	ERM과정, 유형별관리
52	2009	비	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유형별관리
53	2010	학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능요소 연구	장기보존
54	2010	연	전자기록의 출처확인 지원전략	개념속성
55	2010	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ERM과정, 유형별관리
56	2010	연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과리기관 감사인증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법제, 장기보존
57	2010	비	과학데이터 보존 및 활용모델에 관한 연구	유형별관리

* 학술지명: 학(한국기록관리학회지), 연(기록학연구), 문(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정보관리학회지), 비(한국비블리아)

2.3 기본 정보

〈표 2〉는 전자기록의 속성과 관리를 연구한 57편의 논문을 학술지와 간행연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점차 논문의 편수가 늘어나고 게재 지면도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초창기에는 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문헌정보학 학술지에도 고르게 전자기록 연구논문이 게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년간 가장 많은 전자기록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는 22편을 실은 기록학연구로, 2005년 이후에만 19편의 전자기록 논문을 게재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는 11년간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총 15편의 전자기록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게재 편수가 충분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중에서는 정보관리학회지에 11편, 한국비블리아에 6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6편의 전자기록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다.

총 57편의 전자기록 논문 중 2편(Cloonan 2002; 박은경 2005)은 영어로 작성되었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논문은 총 12편으로, 국가기록원이 4편, 학술진흥재단이 4편, BK 21 사업이 1편, 대통령 기록관이 1편의 연구논문을 지원하였다. 대학의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2편(송병호 2004, 2005)으로 모두 상명대학교의 지원을 받았다.

전자기록 연구 57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59명이었다. 다음의 〈표 3〉은 연구자를 논문 편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김익한(5), 송병호(5), 이소연(8), 임진희(5)가 5편 이상의 논문

〈표 2〉 학술지/연도별 전자기록 논문 게재수

학술지/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기록관리학회지	-	2	3	1	1	2	-	3	1	1	1	15
기록학연구	1	-	3	-	-	-	3	3	4	4	4	22
정보관리학회지	-	-	-	1	3	1	1	1	2	2	-	11
문헌정보학회지	-	-	-	-	1	1	-	-	1	-	-	3
한국비블리아	-	1	-	-	-	1	-	1	1	1	1	6
계	1	3	6	2	5	5	4	8	9	8	6	57

〈표 3〉 논문편수별 연구자

편수	연구자명
5편 이상	김익한, 송병호, 이소연, 임진희
4편	서은경, 김용
3편	서혜란, 김희섭, 천권주
2편	권도윤, 박은경, 설문원, 오경주, 오삼균, 윤대현, 이경남, 이태영, 정원식, 조은희
1편	강진영, 광정, 김늘봄, 김명옥, 김선태, 김성겸, 김유승, 김자경, 김재훈, 김포옥, 김효진, 김희정, 남성운, 남영준, 리상용, 서연주, 송지현, 심경, 심성보, 오상훈, 우학명, 우현민, 유영수, 원선민, 윤수영, 이승억, 이원영, 이윤주, 이재하, 이정희, 이지영, 이해영, 이혁재, 임미숙, 정기에, 정석권, 조운선, 한선화, 현문수, Cloonan

을 발표하였고, 단독연구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사람은 송병호(5)와 김익한(4)이었다. 59명 중 2편 이상의 전자기록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총 19명이었다.

연구자를 살펴보면, 33편이 단독연구자의 논문이고 24편이 공동연구 성과물이었다. 공동연구 논문 24편 중 2인 저자가 16편, 3인 저자가 3편, 4인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은 5편이었다. 전자기록 연구논문의 저자의 연인원 총수는 100명이며, 논문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교강사가 43명, 실무자가 24명, 연구자가 16명, 박사과정 학생은 6명, 석사학위자나 석사과정 학생은 11명이었다. 57편 중 석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은 13편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3편,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각 2편,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목포대학교, 경북대학교가 각 1편이었다.

3. 주제별 분석

여기서는 57편의 전자기록 연구논문을 세부 주제에 따라 8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세부 주제 영역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범주

안에서는 출판연도 순으로 서술하여 각 주제 영역 내에서 연구의 동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3.1 전자기록의 개념과 속성, 진본성

전통적 종이기록과는 다른 전자기록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연 것은 이승억(2002)이다. 그는 기록의 개념을 전자환경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기록이 종이에서 전자로 매체를 옮길 때 ‘물리적 실체에서 논리적 실체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p.44). 전자기록에 대해서도 출처, 풍, 평가와 선별, 그리고 분류, 기술과 보존 등 전통적 기록관리 원칙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출발점을 열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는 또 Terry Cook을 인용하여 ‘전자기록 ‘원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체의 실질적 기능요건’(p.45)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바로 뒤를 이어 김익한(2002)도 라이프사이클이나, 가치 개념과 평가, 분류와 기술 등의 전통적 기록관리 원칙과 방법론을 전자 환경에서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사실상 전통적 기록에서의 ‘원본성’을 전자

기록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무수한 원본의 존재가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였고, 무수한 원본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배포의 용이성이야말로 전자기록이 일상생활에 그리도 폭넓게 활용되는 바로 그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일본으로서의 기록 개념과 함께 원본성이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가 무색해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니며, 전통적 기록관리에서의 원본성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졌을 때 진본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우리 기록공동체에서 원본성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진본성을 정면으로 다룬 첫 번째 학술논문은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의 논문(2003)이다. 전자기록에서 진본성의 개념, 진본성 평가의 요건, 그리고 진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자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요건을 다루었다. 전자기록을 진본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궁극적 목적임을 전제하고,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 요건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송병호(2005)는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풀었다. 즉, 진본보존의 효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한 합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이전에 발생하게 될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진본성 개념의 취약성과 공격가능성을 정리하고, 그 보완 방안을 다루었다. 서혜란 등이 진본성의 유지를, 송병호가 진본성의 확보를 초점으로 삼았다면, 김익한(2006)은 진본성의 평가²⁾에 주목하였다. 진본 평가의 각 시점(입수, 저장, 각종 처리행위 후, 주기적 무결성 평가와 열람요청시의 평가)과 방법론(일치검증 평가, 내용적 동일성 확인평가, 메타데이터 요소 적절성 평가, 불법적 변경여부 평가와 물리적 상태평가)을 설명하였다.

이들 논문이 나온 이후, 우리 기록공동체는 한 동안 전자기록의 개념과 진본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그 개념이 학술논문에 등장한 것은 이른바 '대통령 기록 유출 논란' 때문이었다. 2008년 여름 내 대한민국 언론은 연일 대통령 기록관, 지정기록, 전자기록, e-지원, 서버, 원본과 사본 등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공동체에 속하는 개인과 단체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는 형국이었다. 아마도 진본성이라고 하는 낯선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그 침묵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 여름이 다 지나고 난 10월 7일, 한국 기록학회가 '대통령 기록과 국가기록관리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현안토론회³⁾를 열었고, 여기서 이소연(2008)⁴⁾은 '전자기록의 속성에 기반 한 기록관리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

2) 여기서는 전자기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최재희(2011)의 연구에서 다루었으므로 제외하고, 진본성 평가에 대한 논문만을 연구동향 분석에 포함시켰다.
 3) 한국의국어대 대학원 2층 브릭스실에서 열린 이 현안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이승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을 주제로, 이상민은 '외국의 대통령기록관리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경건, 노명환, 송병호, 오향녕이 참여하였다.

문은 대통령 기록 논란에서 드러난 다섯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는데, (1)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의 차이점과 원본성, (2) 전자기록에서 중심개념으로서의 진본성, (3) 전자기록의 열람권과 사본제작, (4)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록관리, (5) e-지원시스템으로부터 PAMS로의 이관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 한국기록학회가 개최한 '기록관리법 10년: 한국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⁵⁾에서, 전자기록 부문에서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소연(2009b)은 전자기록이 갖는 기록으로서의 속성과 디지털 자원으로서의 속성을 구분하였다. 또 진본 전자기록에 초점을 두고 그 재생산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송병호(2010)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진본성 개념이 유발하는 혼란을 지적하고, 진본성을 대치하는 개념으로서의 '출처'⁶⁾와 그 확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송병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록학 공동체에는 아직도 다양한 학문에서 성장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 그럴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문제는 새로 유입되는, 어딘가 다른 분야에서 완성된 연구자들 각자가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사용하던 용어와 그 용어에 담긴 개념에 대한 선

입견과 함께 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기록학을 기반으로 성장한 연구자들이 한 세대를 이룰 때까지는 당분간 기록공동체는 기본 개념과 용어의 혼란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개념과 용어 사용의 혼란은 주로 기록(records)과 보존기록(archives)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같은 기록을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는 점에 미처 적용하지 못한 채 기록공동체에 새롭게 유입된 연구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김용(2007)은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등록과정에서 보존정보패키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p.69). 기록의 관리주체가 기록관(records center) 단계에서 보존기록관(archives) 단계로 넘어가는 이관(accession)도 혼란을 유발하기 쉬운 개념이다. 권도윤, 김희섭, 오삼균(2009)은 이관을 전송으로 이해했고(p.23), 오삼균 등(2008)은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변환(conversion), 입수(ingest)를 모두 이관으로 이해하였다.

기록 생애주기에 대한 혼란은 RM과 AM의 기본 표준 문건에 대한 혼란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존 표준을 연구하면서 ERMS 표준인 미 국방부 표준을 사례로 다루거나(박은경 2002), 장기보존 표준모형을 다루면서 ISO 15489와 ISO 14721 (OAIS 참조모형)로부터 등

4) 현안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기록학연구 18호에 발표문으로 실었다.

5)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09년 4월 3일에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는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수걸 '지방기록관 설립의 현황과 전망,' 조영삼 '대통령 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이영학 '전문요원 제도 운영 현황,' 이소연 '전자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송병호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김익한 '기록관리법 10년과 향후 기록관리의 과제.' 이 날 발표 내용은 기록학연구 21호(2009년 9월 발행)에 특집으로 게재되었다.

6) 송병호는 진본성을 '출처'로 신뢰성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록요소를 추출하는(이원영, 강진영 2005)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기록(records)과 문서(documents) 사이의 혼란도 특기할 만하다. 박은경(2002, 2005)은 동일한 대상을 영어로는 electronic records, 우리 말로는 전자문서라고 부르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다룬 김성겸(2007)이나 이원영과 강진영(2005)도 같은 논문에서 전자문서와 전자기록이라는 용어를 병용하고 있다. 기록과 문서 사이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기구 ISO조차 서로 다른 기술위원회가 전자문서(TC171)와 전자기록(TC46/SC11) 관련 표준을 개발, 제정하고 있으나 두 용어를 분명하게 구분할 방안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본 개념과 용어를 학술논문의 주제로서 뿐 아니라 일상적 조직생활의 맥락에서까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교과서 등에서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한 용어를 다른 분야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명확히 보이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3.2 기록관리 정책과 법제

아무리 실무에 초점을 둔 논문이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기록학 논문이 정책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기록관리 실무가 물샐 틈 없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갈급하여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자기록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포괄적

정책과 법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연구만을 다루었다.

설문원의 연구(2001)가 그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 전자정부 환경에서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혜란 등(2004)은 전자기록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법규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국내 관련법으로는 기록물관리법, 전자정부법, 사무관리규정과 전자서명법을 검토하였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정책과 법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자기록관리의 범위, 전자기록 생성, 그리고 저장과 접근/이용, 처리, 보안, 증적, 장기보존 등의 기록관리과정과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기타 전자기록물 관리와 전자기록관리 기반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법제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전자기록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아젠다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 연구로부터 두 편의 학술논문이 나왔다. 그 중 첫 번째인 이윤주와 이소연(2009)은 InterPARES의 성과물을 분석하여, 전자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프레임워크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원칙, 정책의 범위와 법적 고려사항, 진본성, 그리고 기록관리 과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조화되었다. 두 번째는 이경남과 이소연(2008)으로 디지털 보존 분야의 미래 과제를 밝힌 19개의 아젠다⁷⁾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에 특화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법제

7) 향후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연구 유형을 말한다.

와 정책영역, 연구 영역, 기술 영역, 파트너십 협력 영역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조화되었다. 앞의 절에서 언급한 이소연의 논문(2009b)도 전자기록 관리 부문에서의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10년 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자기록관리 원칙에 기반한 정책 수립, 통합적 전자기록 체계의 정립, 장기보존 기능의 개발과 구현, 지식확산과 협력 등의 정책과제가 그것이다.

대통령기록관도 2008년에 '국제 모범기준과의 격차분석에 기반한 대통령기록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발전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 연구의 결과를 정련한 내용이 다시 한 편의 논문(이해영 외 2010)으로 나왔다. 연구진은 OAIS 참조모형, UKDA/TNA의 자가진단보고서, TRAC, DRAMBORA와 MoReq2 등의 해외 표준자료와 국내법령, 표준을 분석하여 전자기록관리기관이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감사인증도구를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나온 정책법제연구의 대부분은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해외 사례 검토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정리한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실효성 있는 논의로 발전시키려면, 현재까지의 실무와 그 성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무로는 채울 수 없는 간극의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문제들 중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3 전자기록의 통합 관리

전자기록의 출현과 확산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록관리의 전통을 이어 온 다른 나라들에서조차 어렵게 쌓은 기록관리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의 과정과 결과의 산물인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과 다양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분산되어 생산 관리되는 데에서 발생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기록생산자/이용자가 기록생산시스템에 담긴 기록을 기록이 아닌 '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기록 연구는 종이기반 기록관리 체계가 정착되기도 전에 전자문서시스템과 전자정부 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와중에 등장하였다. 따라서 초기 전자기록 연구 문헌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에 담긴 자원이 기록이며, 기록관리 방법론을 적용해야만 이들 '정보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을 탑재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57편의 전자기록 논문 중 가장 처음 발표된 것은 기록학연구 2호에 실린 김익한의 논문(2000)이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결재 및 전자기록유통, 전자우편, 전자계시판, 시스템 운영관리 기능에서 기록관리 방법론을 적용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창간호에 이듬해 발표된 이재하와 윤대

현의 논문(2001)도 전자문서의 개념과 표준화 방향을 다루면서,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익한은 전통적 기록관리 원칙과 방법론을 전자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은 또 다른 논문(2002)에서 명지대학교의 전자문서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최초의 기록학 석사인 김재훈은 석사학위 청구논문(2001)을 정리하여 기록학연구 5호(2002)에 게재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의 전자정부 추진 및 기록관리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송병호(2004)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유통 현황을 검토하고, 정보 표현, 문서 구성, 표준관리 등 세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나 전자문서시스템 환경에서 전자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한 초기의 관심은 점차, 주로 민간기관에서 주목 받고 있던 지식관리시스템과 전자기록관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학술지에 발표된 초기 논문 중의 하나인 심경의 논문(2001)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자와 유관기관 사이의 지식 공유와 연구개발(R&D)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다루었다. 이 논문은 연구개발 기록이 기록학이 아니라 문헌정보학에 갖는 의미(p.158)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연구행정기록이나 학술 및 기술개발 연구기록 문제를 다룬 초기 성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김익한(2004)은 기록이 지식경영의 주요 자원임을 밝히고, 기록관리 기법이 통합적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기에·남영준(2008)은 기업의 지식자원은 내부

성과물인 기록과 외부에서 획득한 정보자료로 구분됨을 지적하고, 기록관리와 정보관리의 특성비교를 통해 공기업 환경에서의 통합 전략을 제시하였다. 서혜란 등(2006)도 전자기록관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자원의 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앞의 연구들이 전자기록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 환경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임미숙(2008)은 학교라는 구체적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교무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ISO 15489를 기준으로 하여 이 시스템이 결여하고 있는 기록관리 기능을 확인하였다. 뒤의 유형별 전자기록을 다룬 절(3.8)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다양한 업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를 다룬 연구들도 통합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임미숙처럼 특정 업무시스템을 RMS와 연계하는 방식의 연구가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기록의 진본성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기록을 이관할 때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만큼, 생산기관에서는 생산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되 RMS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존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단계를 위해서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시스템과 데이터세트의 특성에 맞는 이관 요건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인사기록, 회계기록 업무 성격에 따른 시스템 구분이나 텍스트, 수치, 복합형 등 데이터세트의 유형에 따른 요건을 밝히는 연구가 그 예가 될 것이다.⁸⁾ 한 기관을 사례로 하여 그 기관과 소속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의 현황조사와 그 시스템에 담긴 데이터셋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3.4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와 표준

전자기록관리시스템(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ERMS)에 대한 연구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이소연과 김자경(2004)이다. 당시 전통적 기록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급기관에 설치 중이었던 자료관시스템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록관리 국제표준 ISO 15489로부터 획득에서 처분까지의 각 기록관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추출하고, 각 기능이 미국, 영국과 유럽 연합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박은경(2005)은 ERMS 설계를 다룬 논문에서 1990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의 기록관리(RM)를 비교하고, OAIS 참조모형, 미 국방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표준, VERS와 Moreq 등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국가기록원이 2005년에 수행한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사업은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하여 학계가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자기록에 맞추어 기록관리 업무과정을 설계하고, 전자기록관리시스템 모형을 제시하였다. 팽정(2006)은 기록관리 대상 선별, 분류체계와 진본성 장기유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

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확산과 기록관리법 전면개정 시행에 맞추어 2007년에 표준RMS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나온 김용의 논문(2007)은 표준RMS에 대한 검토 없이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요구사항과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였다. 반면, 임진희(2008)는 해외 ERMS 설계표준의 배경이 되는 실무환경과 우리 기록관리 요건이 같을 수 없음에 주목하여 이전의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분류의 계층 수와 편철 위치, 처분지침과 처분보류, 대량 일괄작업 등을 예로 들어 해외 표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표준이 반영하는 기록관리 실무를 유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기록학회가 '한국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009년에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송병호(2009)는 기록관리시스템 측면에서 기록관리법 공포 후 10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국가기록원의 ISP 사업이 기록관리 업무재설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충분한 개념화 작업이 없이 관련 사업이 개별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 ISP 사업은 각 생산기관에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기록관리 실무가 정착하기 이전에 완료된 것이 원인이었다. 사실상 재설계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외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업무를 고안하고, 이렇게 상상해 낸 가상의 업무를 수행할 시스템 요건을 다시 고안하는

8)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에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나온 바 있는데, 그 예로는 예산회계시스템을 다룬 이은별(2008), 조달정보시스템을 다룬 이순한(2008), 인사관리시스템을 다룬 진채환(2007)을 들 수 있다.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보면 ISP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한계를 안고 만든 RMS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아직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모든 정보시스템은 첫 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후의 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자기록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게 결락된 부분은 기록관에서의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까지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표준 RMS가 도입된 지도 4년이 지났지만 표준RMS의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도 아직 수행된 바 없다.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지원하는 기능성의 측면이나, 기록생산자나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용편이성에 대한 평가 연구야말로 전자기록 연구의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촉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3.5 기록관리 과정별 기능 요건

전자기록 관리 연구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면서 획득부터 처분까지 기록관리의 개별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앞 절에서는 연대기 순으로 검토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ISO 15489가 제시하는 기록관리과정의 순서, 즉 획득-등록-분류-저장-접근-추적-처분으로 연구를 구분하고, 각 과정의 연구는 발표 순서에 따라 서술할 것이다.

획득에 초점을 둔 논문으로는 이메일 기록의

획득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한 서연주와 정석권의 연구(2009), 그리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한 선별기준과 절차를 다룬 조은희와 임진희의 연구(2009)가 있다. 등록에만 주목한 연구는 나온 바 없으며, 분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논문으로는 설문원과 천권주(2005)가 있을 뿐이다. 이들은 영국의 ERMS 표준을 중심으로 전자기록철의 계층구조와 관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전자기록철의 개념을 정리하고, 개시와 종결 기준을 설정할 것, 그리고 전자기록권(part)의 개념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저장에 관련하여 송병호(2005)는 법령상의 보존매체와 실제 사용 중인 보존매체를 살펴보고, 생산과 변환, 폐기 등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보존매체의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접근에 관련한 연구로는 천권주(2008), 김용(2008), 그리고 이정희와 김희섭(2007)이 있다. 천권주와 김용이 접근의 통제, 즉 보안 측면을 다룬 데 비하여, 이정희와 김희섭은 접근의 지원, 즉 검색 측면을 연구하였다. 천권주는 영국, 유럽연합과 호주, 미국의 ERMS 설계표준을 비교하여, 접근통제 기능에 대한 필수, 선택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배치-실행의 3단계에 걸친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용은 스마트 카드 기반 보안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접근지원을 다룬 이정희와 김희섭은 대부분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이 사용 중인 키워드 기반 검색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반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구현한 시스템에서 검색질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한국해양대학교의 '인사발령통보' 기록을 대상으로 한 검색 성능평가를 실행하였다.

기록관리과정 중 추적과 감사증적에 관한 논문은 아직 발표된 바 없다. 가장 많은 연구가 주목한 기록관리과정은 이관으로 천권주(2007), 오삼균 등(2008), 그리고 임진희와 조은희(2010) 등이 이관을 다루었다. 천권주는 OAIS 참조모형의 기능모형, PAIMAS(Producer-Archive Interface Methodology Abstract Standard), 호주와 영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관절차 모형을 제안하였다. 오삼균 등은 마이그레이션을 이관 절차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관절차와 마이그레이션 실행 전략을 제안하였다. 임진희와 조은희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과정에서의 데이터 보정, 그리고 품질 개선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각 과정에 대한 연구영역에서도 해당 과정의 기록관리 업무를 실증적으로 관찰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더 많은 연구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현황 보고 등 우리나라에 고유한 기록관리실무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기능성과 이용편이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이미 나왔어야 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6 장기보존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에 대한 관심은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과 전자 보존기록(electronic archives)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지도 않던 초기 연구에서부터 두드러졌다. 전자기록과 전자간행물(electronic publication)을 모두 포괄하여 전반적인 디지털 보존을 다룬 논문까지 포함시키면 더욱 더 많겠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기서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에 초점

을 둔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에 관해서는 2002년에만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박은경(2002)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의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Cloonan(2002)은 한국기록관리학회가 2002년에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기록매체의 보존관리'에서 발표한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것으로 종이에서 디지털 기록으로의 이전이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InterPARES와 NARA, NDIIPP, Illinois의 Find It 프로그램, Internet Archive, LOCKSS, RLG와 OCLC 등 디지털 보존과 관련하여 기록관 및 도서관의 주요 동향을 소개하였다. 남성운·윤대현(2002)은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개념과 방안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

장기보존의 각 측면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였다. 2005년에 발표된 이원영과 강진영의 논문(2005)은 장기보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ISO 15489와 14721 등 국제표준을 검토하였다. 유영수(2007)는 영국의 PRONOM과 미국의 GDFR을 검토하여, 포맷등록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파일포맷 정보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취하는 전자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권도윤·김희섭·오삼균(2009)은 대표적인 장기보존 기술전략이라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DPT와 CAMILION 프로젝트 등 적용사례를 검토하였다.

김명옥과 리상용(2010)은 문헌조사와 표준 연구를 통해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시스템을 위한 18가지 기능요소를 제안하였다. 한편 이해영 등의 논문(2010)은 대통령기록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인 '국제 모범기준과의 격차 분석에 기반한 대통령기록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발전전략 연구'(2008)의 성과물을 재편한 것이다. ISO 14721, TRAC, DRAMBORA 등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표준 자료를 분석하여 기록관리 기관이 스스로의 전자기록 관리 및 보존 역량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모두가 OAIS 참조모형, ISO 14721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이 국제표준이나 여기서 상당히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는 장기보존 핵심기술은 매우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시스템의 기능요소를 제안하면서도 장기보존의 핵심기술인 보존계획(preservation planning) 기능을 상당부분 누락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김명옥, 리상용). 마이그레이션을 다루면서도 이 보존전략이 전체적인 보존계획 안에서 다른 메카니즘과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다루지 않는 것도 석연하지 않다(권도윤, 김희섭, 오삼균). ERA(Electronic Records Archives)가 ERMS(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⁹⁾ 장기보존 연구들은 ERMS 연구들이 보이는 정도의 구체성도, 전체 틀에 대한 이해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보존 영역에서만만큼은 아직도 더 많은 해외 문헌과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실무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시사점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7 정보패키지와 메타데이터

정보 패키지는 OAIS 참조모형의 주요 모형 중 하나일 만큼 전자기록의 관리와 보존에 있어서 핵심적 기재이다. 전자기록 자체와 맥락에 관한 정보, 인증 정보 등을 분리할 수 없게 단단히 묶어 주는 기능과 함께, 장기 보존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담은 용기가 되기도 한다. 보존 메타데이터(preservation metadata)는 관리 메타데이터(administrative metadata)의 한 유형으로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에 필수적인 정보를 구조화한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두기만 하면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종이기록과는 달리, 전자기록은 지속적으로 기술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존할 수 없다는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장기보존을 위해서는 보존처리를 위한 필수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보패키지와 보존메타데이터를 다룬 연구를 함께 묶어 살펴보겠다. 전자기록에 관련된 다른 세부 주제영역과 달리 2006년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만큼 우리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이기도 하다.

이경남(2006)은 PREMIS Data Dictionary와 호주의 전자기록관리전략인 VERS를 중심으로 보존메타데이터의 개념, 기능과 구조를 살펴보고,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임진희(2006)는 OAIS

9) OAIS 참조모형의 보존계획 기능 하나만 보더라도 4가지 세부 기능을 포함(이소연 2009a)하고 있으며 이 각각의 기능이 다양한 메카니즘과 연동해야만 장기보존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참조모형의 보존정보패키지(AIP: Archival Information Package)를 검토하여 기록 AIP의 구성과 구조,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저장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성겸(2007)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기술규격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정보패키지의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학명과 김희정(2009)은 국가기록원과 국회기록보존소가 채택하는 보존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존 메타데이터와 보존정보패키지에 관련한 현재 연구는 OAIS 참조모형이나 PREMIS Data Dictionary가 정의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보존 메타데이터에 관련하여 더 진전된 연구는 전자기록 장기보존에 관련된 업무프로세스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후라야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선형적으로 정의하여 축적한 메타데이터가 실제 보존처리 업무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존처리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는 연구가 더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이유다.

3.8 유형별 전자기록의 관리

특정 유형의 전자기록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있다. 각 4편의 이메일과 데이터세트에 대한 논문과, 각 1편의 자막기록, 과학기록, 웹기록을 다룬 논문이 그것이다.

기록으로서의 이메일에 주목한 첫 번째 연구는 서은경(2004)으로 이메일을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송지현(2007)은 영국, 미국, 호주와 캐나다 공

공기관에서의 이메일 관리지침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에서 이메일을 기록으로 관리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용, 김늘봄과 이태영(2008)은 이메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요소를, 서연주와 정석권(2009)은 이메일 기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기록으로 관리할 대상으로서의 데이터세트를 다룬 첫 번째 연구는 현문수의 논문(2007)이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특성과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직과 기술의 측면에서 영국의 NDAD(National Digital Archive of Dataset)와 AAD(The Access to Archival Dataset) 사례를 비교하였다. 김포옥과 윤수영(2007)은 ISAD(G), RAD, MAD, NDAD의 기술규칙을 비교하여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조은희와 임진희(2009)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초점을 두어 기록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임진희와 조은희(2010)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을 이관할 때의 데이터 보정과 품질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지영(2004)은 공중과 방송과 비디오 아트에서 자막기록의 의미와 전달성을 다룬 독특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혁재와 김유승(2009)은 공공기관에서의 웹 기반 기록정보 관리정책과 문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김선태 등(2010)은 학술기록으로서의 과학 데이터를 검증, 공유하고 재활용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형별 전자기록 관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나온 연구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아직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시사점

분석 대상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전자기록 연구문헌이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현장을 조사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해법을 찾는 실증연구가 거의 없다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학술연구를 구성하는 기본요건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4.1 현장 기반 실증연구

전자기록 연구뿐만 아니라 기록학 전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증연구가 턱 없이 부족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도처에 전인미답의 미개척지가 널려 있었던 기록관리와 기록학의 초기에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장기보존의 요소기술과 같이 아직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연구영역도 있다. 평가와 같은 연구영역은 아직 그 실무가 추상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본격적인 실증연구가 시작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관리방식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전자기록은 이미 왕성하게 생산되고 있었을 정도였으니 다양한 전자기록의 생산 방식에 대한 실증연구조차 찾기 어려운 점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록관리 실무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기대에 미칠 만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라고 해도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중앙부처에 대거 배치되고 6년이 흘렀다. 느린 속도지만 민간기록관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실무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국내의 실무현황이 아니라 해외 문헌만을 다루는 연구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한된 해외사례를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하여 얻어낸 추상적 원칙이 우리 사정에 적용하기에 적절한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인지, 원칙은 적절하나 적용 방법을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방법은 알지만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각 영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초창기에는 빈 칸을 채울 답을 급히 찾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칸 찾아낸 답 중에 오답을 찾아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을 잘 하는 사람들, 실무자이자 연구자인 기록전문가들이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일 터이다.

현재로서는 그나마의 실증연구들이 석사논문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학술 논문으로 발표될 뿐이다. 학술지에 발표되지는 않은 석사논문 중에서도 일부 실증연구들(이은별 2008; 이순한 2008; 진채환 2007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임미숙(2008)이나 이정희, 김희섭(2007)의 방법론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연구방법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기록생산시스템을 조망하거나, 특정 기관을 사례로 하여 기록생산시스템의 현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전자기록을 기록관리 체제 안에 편입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적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일반원칙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여 이론을 추적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론이나 원칙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해외의 사례 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론은 실증적 발견을 추적하고 이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시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4.2 연구방법론

기록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점도 실증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원인일 것이다. 이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57편의 전자기록 연구 중 채택한 연구방법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언급한 것은 30편뿐이었다. 그 대부분은 해외 표준과 법령, 문헌 사례를 수집하여 비교한 연구였다. 임진희(2008)는 실무환경, 조건, 맥락 등을 무시하고 표준의 기능만 분석하는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외표준의 맹목적 검토가 의미를 갖는 시점은 지났다고 선언하였다. 해외표준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록관리 실무를 반영하는 표준과 시스템, 그리고 실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는 논문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생산기관에서의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를 정의한 ISO 15489와 보존기관에 적용해야 할 ISO 14721, 또는 도서관 사례와 기록관 사례 같이 서로 다

른 것을 비교할 때에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와 그 비교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즉 한계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미덕을 갖춘 논문이 흔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 연구를 연구하기 위해 기록관과 도서관의 보존 메타데이터 사례를 비교하는 경우(이경남 2006)는 불가피한 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보존 표준을 연구하기 위해 RM표준인 DoD나 도서관 사례인 Cedars를 비교하는 경우(박은경 2002)는 논리적 설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다. 사례를 비교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개념 틀을 적용한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여러 사례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설명한 후 결론을 제시하되, 어떤 논리적 추론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논문도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론 부재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재가 계속된다면 현장과 실무가 정착되는 날이 오더라도 기록학의 학문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례연구, 문헌연구, 증거기반 연구방법에 대한 집단적 학습을 통해 기록학의 학문적 성격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정립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하겠다.

4.3 학술연구의 기본 요건

기록학의 특성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어쩔 수 없이 기록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특성과 학술연구의 기본 요건에 주목할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기록학의 연구 대상은 무엇인가? 기록학은 어떤 방식으

로 이론을 정립할 것인가? 이론과 원칙은 불변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론이 변할 수 있고, 발전하는 것이라면 기록학계는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당연한 현장의 문제, 제도의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뛰어난 10년을 지내고 보니 이렇게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볼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문성 확립에 대한 내외부의 요청에 직면한 지금에야말로 학문의 특성에 대한 본격적 탐구의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연구논문의 기본 요건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록학에서의 학술연구의 기본 요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57편의 전자기록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이 연구의 목적을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연구의 목적을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은 논문이 5편이나 있었으며, 그 중 두 편은 초록에만 연구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었다. 논문의 서술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과 내용, 목적을 유발한 문제의식과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의 정합성, 즉 연구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짐작되었다. 마찬가지로 사례 중심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명시한 논문도 거의 없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연구의 한계를 연구의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었다.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시간과 상황의 한계로 못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연구의 한계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였다. 이 또한 연구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즉 일반

화가능성(generalizability)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연구는 왜 하는 연구인지, 이 연구로 학계와 현장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로부터 비롯된 성찰의 구체적 결론을 제언의 형태로 결론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언은 현장을 위한 제언과 학계를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장을 위한 제언은 정책과 실무를 위한 내용으로, 학계를 위한 제언은 후속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1세대 연구자가 아직 왕성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술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지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공유하지 않으면 학술연구의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록학의 지식기반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5. 결론

다가오는 2015년은 최초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전자기록이 보존기록관으로 이관되는 해이다. 이해영 등(2010, p.5)은 뉴질랜드에서는 정부기관의 53%가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전자기록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였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기록학의 다른 주제영역에서와 같이 전자기록 연구와 실무에 있어서도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고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학

술연구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늦어질수록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 간 기록학과 문헌정보학 학술지 5종에 수록된 전자기록 연구논문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세부주제를 영역별로 확인하고, 기록학의 지식 기반을 축적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기록학의 다른 주제영역에서도 더 많은 연구동향 분석 연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연구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고 다루지 않은 디지털 자원의 장기보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전자기록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장기보존 연구만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과학 데이터, 디지털 미디어 등 기록과 간행물의 경계에 있는 디지털 객체를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디지털 보존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기록관리와 기술 메타데이터 연구를 포함하는 정리기술 영역의 동향 분석을 통해 연구문헌의 결락을 찾아내고, 연구의 집합적 방향을 도정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웹 서비스와 기록 콘텐츠를 포함하여 기록 서비스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 정. 2006. 행정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 개선 모델 분석. 『기록학연구』, 14: 153-190.

국가기록원. 2007. 전자기록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아젠다 개발.

권도윤, 김희섭, 오삼균. 2009.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9-40.

김명옥, 리상용. 2010.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능요소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101-126.

김선태 외. 2010. 과학데이터 보존 및 활용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81-93.

김성겸. 2007.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구축 사례 연구. 『기록학연구』, 16: 97-146.

김 용. 2008.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자문서 안전배 포 및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 설계 및 구현. 『정보관리학회지』, 25(1): 75-98.

_____. 2007.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61-82.

김용, 김늘봄, 이태영. 2008. 이메일 기록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4): 87-113.

김익한. 2006. 전자기록의 진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 『기록학연구』, 14: 91-117.

_____. 2004.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정보관리학회지』, 21(2): 153-167.

_____. 2002. EDMS와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 『기록학연구』, 5: 3-38.

_____. 2000. 전자정부와 과학적 기록관리: 방법

- 론적 응용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 49-76.
- 김재훈. 2002. 전자정부 추진과 기록관리방안. 『기록학연구』, 5: 39-86.
- _____. 2001. 『전자정부 추진과 기록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 김포옥, 윤수영. 2007. 데이터세트 기록물의 기술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39-59.
- 김희정.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_____.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남성운, 윤대현. 2002.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101-120.
- 박은경. 2005.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System Design: Trends and Vision.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65-77.
- _____. 2002. 전자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한 표준화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97-118.
- 서연주, 정석권. 2009. 공공기관의 이메일 기록 획득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25-145.
- 서은경. 2004. 전자우편문서의 기록관리적 접근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1-21.
-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2003.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0(2): 241-261.
- 서혜란 외. 2006.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국가기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301-333.
- _____. 2004.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193-218.
- 설문원. 2001. 공개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정책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1): 65-86.
- 설문원, 천권주. 2005. 전자기록철의 구조와 관리방안: 영국 ERMS 표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49-72.
- 송병호. 2010. 전자기록의 출처확인 지원전략. 『기록학연구』, 25: 47-89.
- _____. 2009.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385-411.
- _____. 2005.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43-59.
- _____. 2005. 전자기록물을 위한 보존매체의 관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177-192.
- _____. 2004. 정부 전자문서유통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3): 185-202.
- 송지현. 2007. 공공기관의 이메일기록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5: 141-183.
- 신은영. 2006.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아키비스트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13-132.
- 심 경. 2001. 과학기술 종합지식 경영시스템

- (R&D-KMS) 구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121-158.
- 오삼균 외. 2008. 전자 기록물 이관 절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441-461.
- 우학명, 김희정. 2009. OAIS 참조모형의 PDI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록 보존기술요소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4): 227-248.
- 유영수. 2007.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포맷등록시스템 개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145-170.
- 이경남. 2006.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보존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기록학연구』, 14: 191-240.
- 이경남, 이소연. 2008. 전자기록의 장기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아젠다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11-234.
- 이상민. 2000. 전자기록물의 관리 원칙: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 13: 124-125.
- 이소연. 2009a.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기보존 기능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6: 73-78.
- _____. 2009b. 전자기록 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학연구』, 21: 355-383.
- _____. 2008. 전자기록의 속성에 기반한 기록관리의 과제. 『기록학연구』, 18: 317-333.
- 이소연, 김자경. 2004. 전자기록관리시스템(ERMS) 설계표준의 기능요건 분석: ISO 15489를 기준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1(3): 227-250.
- 이순한. 2008. 『조달업무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달정보 기록관리 요건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이승억. 2002.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6: 41-72.
- 이원영, 강진영. 2005. 전자문서 아카이빙 표준모델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2): 147-164.
- 이윤주, 이소연. 2009.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기록학연구』, 19: 193-249.
- 이은별. 2008. 『국가 재정정보의 기록학적 관리방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이재하, 윤대현. 2001. 정부기관의 전자문서관리 방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245-258.
- 이정희, 김희섭. 2007. 대학 전자기록물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정보관리학회지』, 24(3): 343-362.
- 이지영. 2003. 미디어에 있어서의 자막기록의 의미와 전달성: 공중파방송과 비디오 아트에서의 자막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78-96.
- 이혜영 외. 2010.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기관 감사인증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3-46.
- 이혁재, 김유승. 2009. 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 33-46.
- 임미숙. 2008. 교무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

- 분석. 『기록학연구』, 18: 91-138.
- 임진희. 2008.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실무적 해석. 『기록학연구』, 18: 139-178.
- _____. 2006.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 정보패키지(AIP) 구성과 구조. 『기록학연구』, 13: 41-90.
- 임진희, 조은희. 20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25: 91-129.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정기에, 남영준. 2008. KM 기반의 기록관리 및 일반 정보관리 통합화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23-43.
- 조은희, 임진희. 200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 『기록학연구』, 19: 103-151.
- 진채환. 2007. 『공공기관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8-22.
- 천권주. 2008. ERMS 표준에 나타난 접근통제 요건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8: 179-220.
- _____. 2007.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이관 절차모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39-96.
- 한국기록학회. 2008. 대통령 기록과 국가기록관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현안토론회 자료집.
- 한국기록학회. 2009. 학술심포지엄: 기록관리법 10년. 한국기록관의 현황과 전망 자료집.
- 현문수. 2007.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103-124.
- 황보열. 2003. 전자정부의 의의와 추진실적 및 향후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1): 141-158.
- Cloonan, M. V. 2002. Shifting from paper to digital records: Preservation?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137-148.